

美 “한·미 동맹 ‘철통’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동맹 현대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中 간섭·영향력 우려·반대” 입장도 내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백악관은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간접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

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동맹은 양국의 모든 정당에 소속된 리더십을 통해 세대를 거치면서 성장했고, 지금보다 중요한 적이 없었다. 우리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촉구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진 새히 의원(뉴햄프셔)도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미크스(뉴욕)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민들의 선거 결과를 축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과 대한민국 새 정부와 협력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엑스에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캐린 배스 로스앤젤레스(LA) 시장도 이날 한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시점에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배스 시장은 또 “로스앤젤레스는 해외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한국은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증진을 기대하며 더욱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발효…한국업체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4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 시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엔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반면 기존 관세에 추가된 25%의 관세까지 부과

받게 된 한국 철강업체는 더욱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푸틴 최측근 방북…김정은 만난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논의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타스·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북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양측이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의 일부 사항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도운 북한 전사들의 기억을 항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두달만만이다. 그는 지난 3월 21일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

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서 추가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한 요청이 포함됐을지가 관심이다.

지난 1일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력에 크게 손상이면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역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대를 탈환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전장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쿠르스크 탈환에는 북한의 병력 파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필리핀 HIV 감염 급증…비상사태 선포하나

올 1~4월 6703건…전년동기비 44% 급증

필리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인콰이어러 등 현지 매체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올해 1~4월 HIV 신규 감염 건수가 67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56건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늘었다.

테오도로 허보사 보건부장관은 필리핀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HIV 감염이 가장 빠르게 느는 나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도별 일평균 신규 감염 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허보사 장관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아니라 HIV의 확산”이라며 “HIV에 대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의 HIV 감염 현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신규 감염자 중 상당수가 젊은이라는 것”이라며 “15~25세의 HIV 감염 건수가 약 500%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HIV 감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발병으로 올해 1분기에만 145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HIV가 퍼지는 주요 경로는 성적 접촉이며, 특히 최근 사례의 83%가 남성 간 성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건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